진실이 오른다 -밀레
MILLET 아웃도어의 진실-밀레

光州日報

우암학원 창학63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남부대학교 | 전남과학대학교
062)970-0114 061)360-5050

재능기부 전도사 이건실 명예교수 ▶2 | 긴급점검-'公低私高' 대책 없나 ▶6 | '컬러본색'에 흔들리는 '소비본색' ▶9 | U대회 자원봉사자들 '열공중' ▶13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9461호 1판 2013년 4월 9일 화요일 (음력 2월 29일)

광주 브랜드·경쟁력 높이고 U대회 시설 이용 저비용 개최

2019세계수영선수권 광주에서

상 유치 왜 필요한가

경제파급효과 2조500억 1만8000명 일자리 창출

광주시가 '2015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에 성공한데 이어 이번엔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에 한 발짝 다가서면서 대규모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도시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광주시는 월드컵, 육상선수권대회와 함께 단일종목으로는 세계 3대 메가스포츠 이벤트로 꼽히는 수영선수권대회를 최종 유치할 경우 국제도시이자 스포츠 선진도시로서 광주의 위상제고와 함께 엄청난 경제적 파급효과로 인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운태 광주시장이 선거공약으로 대규모 국제대회 유치를 약속하고, 실제로 민선 5기들어 최근까지 80여개 국제행사를 유치하는 등 광주시가 각종 국제대회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메가스포츠 이벤트의 경우 TV중계를 비롯한 언론보도를 통해 도시가 전세계에 알려지는 것은 물론, 대규모 해외 선수단과 관람객이 도시를 방문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점이 강점이다.

실제로 광주발전연구원에 따르면, 수영선수권대회가 유치되면 전국적으로는 2조4000억원, 광주만으로는 1조4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한다. 또, 전국적으로 1조원 그리고 광주에서만 6500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가 각각 발생하게 된다. 고용 분야에서도 전국적으로는 2만4000명, 광주에서만 1만8000여명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만으로 한정하더라도 2조5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1만8000명의 취업유발효과를 거두게 되는 것이다.

사회적으로도 광주의 브랜드가치와 국제적 위상이 상승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대회가 진행되는 2019년 7월 한 달간 광주는 '수영 축제도시'로 변모하고, 대회가 치러지는 경기장과 도시의 모습이 전세계 10억명에게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등 언론을 통해 전세계 45억명에게 '국제도시' 광주가 소개된다. 메이저 스포츠대회 유치에 따른 광주시민의 자긍심 향상도 무형의 효과다.

광주시가 부산을 비롯해 국내 유수의 대도시들을 제치고 정부 승인을 받아 수영선수권대회 유치에 나선 것은 그동안 크고 작은 80여개의 국제대회 및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면서 노하우가 쌓인 이유도 있지만, 2015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위해 조성한 체육시설을 활용하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고의 대회를 치를 수 있다는 자신감도 크게 작용했다. 남부대학교에 들어서는 하계U대회 수영경기장은 관중석만 늘리면 수영선수권대회 경영 및 싱크로나이즈드 경기 규격에 맞도록 건립되며, 광주여대에 조성되는 하계U대회 다목적체육관 역시 임시수조를 설치해 수구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 다른 경기종목들도 광주호 또는 장성호를 이용한다는 계획을 세워 비용부담을 최소화했다.

강운태 시장은 "2015광주하계U대회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하면 경기장을 새로 짓지 않더라도 전세계 202개국에서 2만여명이 참여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저비용 경제 대회'로 치를 수 있게 된다"며 "특히, 광주의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림으로써 전세계 어느 도시보다도 활력 넘치는 선진 창조도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여고생들 '나라 사랑 병영체험' 북한의 도발위협으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 대광여고 2학년 학생 346명이 8일 육군 제31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나라 사랑 병영체험'을 하고 있다. 1박2일간 실시되는 병영 체험은 지난 2002년 31사단 신병교육대대와 자매결연 이후 10년째 매년 이뤄지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안 팔리는 여수박람회장 장기임대 전환해야"

매각 안돼 6개월 유지비만 71억…우선 활용 시급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 활용에 비상〈광주일보 3일자 1면〉이 걸린 가운데 원활한 사후활용을 위해서는 박람회장을 일괄매각 하는 대신 장기 임대 형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 침체로 박람회장을 매입하겠다는 기업이 나서지 않고 있는 만큼, 장기 임대 방식으로 박람회장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8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가 최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수박람회 사후활용을 해수부 10대 과제로 제시하는 등 박람회 사후활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여수박람회 개막 이전에 선투자 한 4846억원을 올해 안에 회수한다는 방침인데다, 폐막 이후 6개월 동안 박람회장 유지비만 71억원에 달해 사실상 사후활용을 위한 자금은 없는 형편이다.

여수박람회 재단은 박람회 수입금 500억원은 정부 빚을 갚는데 썼고, 추가로 조만간 250억~300억을 추가로 갚을 계획이며, 남은 돈도 박람회장 부지 매각을 통해 상환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말까지 부지 매각에 나섰지만 사겠다는 기업이 없었다. 부지 비용과 추가 건물 건립에만 적어도 5000억원 넘게 들기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3개 기업이 박람회장 사후활용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장기 임대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올해 박람회 부지 매각을 통해 선투자금을 회수한다는 방침을 수정하지 않고는 여수박람회장 사후활용은 사실상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겠다는 기업도 없는 데 무작정 박람회장 부지를 매각하기보다는 장기 임대 등을 통해 먼저 사후활용을 시작한 뒤 선 투자금 회수 문제는 나중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박람회 폐막 이후, 박람회장 유지·보수에만 71억원이 들었는데 유일한 자산인 부지를 매각해 돈을 상환하라는 것은 사후활용을 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면서 "현실적으로 박람회장 매각보다는 장기 임대 등의 방안을 마련해 우선 사후활용을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부다페스트 2파전 유치신청 마감…29~30일 광주 실사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전이 광주와 헝가리 부다페스트 2파전으로 압축됐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8일 오전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4일 마감된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신청서를 광주와 헝가리 부다페스트 등 2개 도시만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제수영연맹(FINA)은 오는 29~30일 집행위원 등 10여명 규모의 실사단을 광주에 파견해 수영장 시설 등 대회 유치 상황을 점검한다. 광주시는 신축중인 남부대학교내 수영경기장 시설에 대한 입체적인 현장도면과 2019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하이다이빙경기장 구축 계획 등을 실사단에 부각시킬 계획이다.

광주시는 또 실사단의 방문에 맞춰 오는 29일부터 내달 4일까지 광주 일원에서 국내 최대 규모인 동아수영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강 시장은 "실사단에게 광주시민의 유치에 대한 강렬한 열망과 철저한 준비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또 "청와대에도 공문 등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협조를 요청한 끝에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며 "메인스폰서를 누가 맡느냐도 중요한 만큼 삼성, 현대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국내 기업들과 접촉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개성공단 北 근로자 철수…폐쇄 검토"

김양건 당비서 담화

북한 김양건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는 8일 개성공단 가동을 잠정 중단하고 북한 근로자를 모두 철수시킬 것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5면〉

김 비서는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남조선 당국과 군부호전광들이 우리의 존엄을 모독하면서 개성공업지구를 동족대결과 북침전쟁도발의 열점으로 만들어보려 하는 조건에서 공업지구사업을 잠정중단하며 그 존폐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이후 사태가 어떻게 번져지게 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고 발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이어 "개성공업지구에서 일하던 우리 종업원들을 전부 철수한다"며 "우리 종업원 철수와 공업지구 사업 잠정중단을 비롯해 중대조치와 관련한 실무적 사업은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맡아 집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학교설립 59주년 (1954~2013)
59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